

석유제품 “유통마진 1조1600억원”

민주당 이근진 의원 주장 … 무폴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30원 저렴

휘발유와 경유 등 덤핑 석유제품의 유통이 증가한 반면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근진(민주) 의원은 9월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1년 유통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운데 약 7180만배럴의 덤핑제품이 주유소 등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리터당 100원 가량의 비정상 마진과 덤핑제품 유통량을 감안하면 한해 최소 1조1600억원의 돈이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상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8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체결된 덤핑 휘발유의 유통가격은 리터당 1110원 수준이었던 반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1267원으로 157원의 가격차이가 있었으며, 경유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697원이었던데 반해 덤핑제품은 145원 낮은 552원이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마진이 일반적으로 리터당 60-7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1170원, 경유는 610원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됐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시중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가량 비싼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을 구입하는 바람에 2001년 한해에만 1조원을 상회하는 돈을 중간유통상이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근진 의원은 “정유기업들의 공급과잉과 석유 수입기업들의 난립으로 덤핑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일선 주유소 역시 정유기업 폴을 달고 있더라도 싼 제품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소비자들은 상표표시에 기만을 당하는 동시에 덤핑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생긴 이익도 중간 유통업자에게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정 정유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판매하는 일명 무폴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폴주유소보다 리터당 30원 이상 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2년 8월 첫째주 폴주유소와 무폴주유소에서 팔리는 석유제품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70.92원이었으며 무폴주유소 휘발유는 1237.95원으로 32.97원 낮았다.

경유도 폴주유소에서는 리터당 696.35원에 팔리는 반면, 무폴주유소에서는 652.53원에 판매돼 43.82원 낮았다.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도 무폴주유소에서 팔리는 가격이 폴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각각 리터당 16.13원, 32.72원 싼다.

폴주유소와 무폴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차이는 인천이 리터당 54.11원으로 가장 컸으며 울산 52.05원, 대전·충북 29.54원, 경기 29.23원, 서울 29.16원, 충남 23.90원, 대구 23.03원, 강원 22.07원, 전북 22.02%, 전남 20.88원, 부산 19.18원, 경북 15.22원, 경남 12.63원 등이었다.

폴주유소와 무폴주유소에서 팔리는 경유 가격차이는 대전이 리터당 56.83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남이 17.94원으로 가장 작았다.

석유공사가 2001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휘발유는 무폴주유소가 폴주유소에 비해 32.88원, 경유가 32.72원 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폴주유소의 가격이 폴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것은 정유기업과 석유수입기업의 현물가격 인하경쟁으로 보다 값싼 제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 유인책으로 폴주유소에 비해 할인폭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6월말 현재 무폴주유소 수는 국내 전체 1만644곳의 4.23%인 452곳으로 집계됐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9/ 27 >